

‘위기’의 여자들 : 보부아르 「위기의 여자」 번역과 1970년대 젠더/섹슈얼리티*

박지영**

차례

1. 들어가는 말- 책 읽는 ‘위험한’ 여자들
2. ‘위기’의 여자들- 보부아르 번역의 도정과 그 의미
 - 2.1. 계약 결혼- ‘동지적 사랑’ 혹은 ‘일탈’에 대한 욕망
 - 2.2. ‘절반’의 자각- 핵가족 담론의 균열과 봉합
3.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70년대 한국에서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텍스트와 사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번역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보부아르 번역사에는 도덕적 관념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실존적 사랑에서 남녀 간의 동지적 사랑, 혹은 일부일처제에 대응하는 일탈에의 욕망까지 다양한 의식이 혼재되어 있었다.

특히 보부아르의 번역이 활발했던 1970년대는 여성학이 제도화되는 등, 한국 여성 의식이 성장하기 위한 객관적 발판이 마련되었던 시기이다. 고학력 여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책 읽는 지식인 여성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인식이 독서를 통해서 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증명해주는 텍스트가 1975·76년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보부아르의 「위기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1747)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의 여자」이다.

한국에서 보부아르의 텍스트는 「위기의 여자」의 발간 이전부터 번역되었으며, 이 시기의 인기에 힘입어 이후 『제2의 성』 등 주요 텍스트가 번역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사르트르와 계약결혼에 관한 텍스트가 많이 번역되어 대중적인 관심이 보부아르의 철학적 측면보다는 사생활, 특히 연애관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동지적 연애를 꿈꾸었던 당대 여성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면서도 이 시기에는 「위기의 여자」 외에도 여성의 억압적 현실, 특히 핵가족 제도 내부에서 구성된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텍스트도 번역된다. 그만큼 당대의 (핵)가족 제도와 미풍양속이라는 전통 관념의 억압에 대응하는 여성들의 의식이 변화했던 것이다.

「위기의 여자」에서 보부아르는 여성 스스로가 억압적 현실을 인식하고 존재론적 자각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매우 냉정한 시각에서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위기의 여자」의 베스트셀러화는 이 텍스트가 불륜이라는 소재를 통해 중년부부의 위기라는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모니끄가 존재론적 자각을 이루기까지 직면해야 했던 처절한 상황에 당대 여성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또한 ‘불륜’에 유난히 분노했던 당대 한국 여성들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한국여성들은 가부장제의 전통과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핵가족 제도의 모순 속에 개별자들간의 관계가 아닌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기 존재성의 증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보부아르와 사르트르의 동지적 사랑을 동경하면서도 보부아르가 기획했던 부조리성을 깨닫는 개별자로서의 여성의 존재론적 자각은 제대로 수용되기 어려웠다.

그래서인지 보부아르의 텍스트 중 「위기의 여자」는 여성주의적 시각을 전유하기 시작한 지식인 여성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다. 이를 볼 때 여성주의적 시각을 전유했던 지식인 여성 혹은 여성작가들과 「위기의 여자」를 읽었던 여성들 간 존재론적 성찰의 온도차는 아직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 다양한 번역의 진폭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가 한국 여성주의 문학 발전에 하나의 기준점이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든다.

핵심어 : 시몬느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 『위기의 여자』(La Femme rompue), 1970년대, 핵가족제도, 결혼제도, 미풍양속,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여성성, 가부장제, 번역, 젠더, 섹슈얼리티

1. 들어가는 말 - 책 읽는 ‘위험한’ 여자들.

1970년대는 여러 면에서 한국여성문학사는 물론 운동사의 결절점을 형성했던 시기이다. 특히 1975년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여성의 해’로, 이는 한국에서도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¹⁾ 미디어 대중 담론을 포함하여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의 삶을 문제시하고 분석하거나, 전망하는 담론들은 1974년 말부터 무성해 진다. 이외에도 관변 여성단체의 활동, 여성학의 발흥 등,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는 한국사회의 여성현실에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²⁾

이처럼 이 시기 여성에 관한 담론이 자주 출몰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이 겹쳐서 작용한 결과이다. 물론 여성의 주체적 자각이 가장 중요한 점이였겠지만, ‘세계여성의 해’ 역시 인구조절을 위한 산아제한 정책과 연계된 것이었다는 사실도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산아제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산의 주체인 여성에게 관심을 둘 수밖에

1) 『여성의 해를 보내며 최고 좌담회- 자기 위치를 자각한 해』, 『매일경제』, 1975.11.24. 이에 대해서는 이선미, 『‘여성’의 사회적 해석과 1976년의 박완서 소설』,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51, 2013, 571쪽.

2) 1970년대 여성주의적 시각의 발흥에 대해서는 이선미, 위의 글, 571~572쪽 참조. 한국여성학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김영선, 『한국 여성학 제도화의 궤적과 과제』, 『현상과인식』, 2010. 가을.

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 전쟁 이후 늘어난 출산율(평균6.5명)에 고민하던 정부가 내놓은 당대의 출산 정책은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였다.³⁾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에 대한 계몽은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박정희 체제 하 전통담론의 재구성을 위해 구성된 가부장적 담론의 유포와 경제개발정책에 걸맞는 노동주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강조된 핵가족 정책⁴⁾, 급속도로 진행되는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빈부의 격차 등 변동기 아버투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 중산층 이데올로기⁵⁾의 수행을 위해서는, 여성 단체들의 동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었다.

위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1970년대 저변으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부문 운동의 에너지 역시 여성들의 자각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태영 등 법조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가족법개정 운동⁶⁾은 관변과 민간 여성단체의 연합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기층에서도 고정희 등이 참여했던 <크리스찬 아카데미> 등 민중 운동의 역할 역시 가장 중요한 성과⁷⁾일 것이다.⁸⁾ ‘민중’ 개념의

3) 70년대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는 배은경, 『한국사회 출산조절의 역사적 과정과 젠더 : 1970년대까지의 경험을 중심으로:1950s - 1970s』,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또한 1970년대 가족계획사업과 가족법 개정운동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윤정란, 『국가·여성·종교 : 1960~1970년대 가족계획사업과 기독교 여성』, 『여성과학사』 8, 2008.6. 참조.

4) 이에 대해서는 김혜경, 『박정희 체제하 “핵가족” 담론의 변화과정과 이원구조 연구 :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2, 2009. 참조.

5) 이에 대해서는 김예립, 『1960년대 중후반 개발 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 판타지의 문화정치학』, 『현대문학의 연구』 32, 2007.

6) 가족법 개정 운동에 대해서는 안경희, 『가족법 개정사와 여성운동 :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6(2), 2014. 외 다수.

7) 박인혜, 『1980년대 한국의 ‘새로운’ 여성운동의 주체 형성 요인 연구: 크리스찬아카데미의 ‘여성의 인간화’ 담론과 ‘여성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4), 2009 등 참조.

8) 이러한 점은 1대 여성학자인 이효재의 구술에서도 잘 드러나는 바이다. 이효재는 “1970년대가 국내외적으로 여성해방운동이 고조된 시기였다고 회고하면서, 특히

등장과 ‘여공’들의 자각을 중심으로 한 노동 운동은 이 땅 여성들의 인식에도 여러 의미에서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1970년대 점차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 지식인 여성이 증가한 물질적 토대와도 관련이 깊은 것이다. 이들이 중등교육을 받은 1960년대~1970년대는 한국사회에서 경쟁 선발 중심의 교육체계가 자리잡았던 시기로, 일률적으로 입학시험을 통해 상급학교에 진학하도록 하는 이 체계에서는 여성도 누구나 성적에 따라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었다. 이 여성들은 이러한 시기에 입시 경쟁을 거치면서 자신들에게도 열려있는 교육기회를 경험했다.⁹⁾ 물론 평균 3.4%로 대학을 다녔던 여성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희소성은 이들이 주변의 여성과는 다른 삶을 꿈꾸게 했고, 자기성취 욕구를 갖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토대의 변화는 책 읽는 여성을 양산하였다. 이 점은 1975·76년은 물론 1970년대 전반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가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위기의 여자』(1975.12.출간)였다는 점에서도 증명되는 것이다.¹⁰⁾ 기묘하게도 1975년은 앞서서도 지적인 세계여성의 해였다.¹¹⁾ 또 『위기의 여자』는 1986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연극으로 공연되어 ‘여성 연극’이라는 수식어를 생산해 내며, 또 한 번 그 존재성을 과시하게 된다.¹²⁾ 이러한

국내에서는 이농해온 젊은 여성들이 산업노동자로서의 성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는 치열한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한편으로는, 가족법 개정을 요구하는 중류층 여성들이 범여성조직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시작했다고 회고한다. 그러는 한편 분단 안보를 내세우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충효를 강조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기반 위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로 미화되어 이러한 여성들의 요구가 억압당하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이효재, 이승희 대담, 『나의 학문, 나의 인생』, 『역사비평』 24, 1994, 248쪽.

9) 1970년대 지식인 여성의 출현과 그 의식에 대해서는 이해정, 『1970년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공부’ 경험과 가부장적 젠더규범』, 『교육사회학연구』 22(4), 2012. 참조.

10) 1976년 12월 당시 『위기의 여자』 번역본은 7판을 찍는 이변을 낳아 문학 붐을 이루었다고 한다.(『76년 문화계 못다한 말(6) 출판』, 『동아일보』, 1976.12.17.)

11) 이 시기를 기점으로 문단과 출판시장은 ‘여성’ 상품시대를 방불할 정도로 여성이 마케팅의 주 대상으로 각광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점이 여성문학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선미, 앞의 글 참조)

점을 보면 보부아르의 「위기의 여자」는 70~80년대 한국 여성들의 감수성에 잘 어울렸던 텍스트였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도라는 통속적인 구도를 갖고 있지만, 주인공의 복잡한 내면을 읽어낼 만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이 텍스트의 선풍적인 인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러한 인기를 반영하듯 1970~80년대 출판계에서는 많은 보부아르의 텍스트가 번역된다.¹³⁾ 또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고 평가되는, 성차별의 구도를 날카롭게 파헤친 텍스트인 케이트 밀렛의 『성의 정치학』(鄭義淑 趙貞鎬 역, 현대사상사)이 번역된 것도 1976년이였다.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급진적인 여성해방 이론을 담고 있는 이 책이 번역될 수 있었던 것은 「위기의 여자」를 읽는 여성들의 존재 때문이다.

이러한 여파로 1977년 보부아르의 저서인 『제2의 성』 역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고¹⁴⁾ 지식인 여성들은 이 텍스트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앞서 인용한 이해정의 구술 연구에 의하면, 한 피구술자는 대학 내의 비제도적인 세미나를 통해 여성학 저서를 접하기도 하고 미국 유학 중이던

12) 오중자 번역의 이 텍스트는 정복근의 각색으로 산울림 극단 1주년 기념작으로 공연된다. 당시 4월 한 달 간으로 예정되었던 공연은 130석 규모의 소극장에 매번 200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괄목할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고, 언론과 평단의 주목을 받으며 다시 6월부터 약 7개월 간 장기공연에 돌입하게 된다. 이진아, 「정복근의 초기 여성연극 연구 -〈위기의 여자〉, 〈웬일이세요, 당신?〉을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15, 한국공연문화학회, 2007. 이외에도 이 공연에 대한 분석적 연구로는 이영미, 「1990년대 초중반 여성연극의 대중연극적 본질」, 『대중서사연구』 13호, 2005, 김옥란, 「여성작가와 여성주의적 시각의 전유방식」, 『한국현대희곡과 여성성/남성성』, 연극과인간, 2004 외 참조.

13) 1970년대 보부아르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자료 목록을 살펴보면, 70년대 번역된 단행본 목록만 해도 총 9종이다. (『老人이여! 생의기쁨을』, 『月刊中央』 49(72.4), 「따져봐야 할 모든 것들」, 『문학사상』. 5(73.2), 『아름다운 映像』. 澄子譯, 正宇社, 1976, 『치녀시절』, 全盛子譯, 文藝出版社, 1976; 『第二의性: 自由스러운女子』; 尹映乃譯, 自由文學社, 1977; 『부드러운 죽음』, 권영자譯, 평민사, 1977; 『계약결혼』; 李石奉譯, 民藝社, 1979; 『완전한 自由』, 吳澄子譯, 文學世界社, 1980, 『창백한 정신의 계절』, 全盛子譯, 두레, 1980)

14) 「금주의 베스트셀러」, 『매일경제』 1977.10.25.

강사의 주선으로 방학 때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과 솔라미스 파이어스톤의 『성의 변증법』을 읽었다고 한다.¹⁵⁾ 이러한 지식인 여성들의 열망을 반영해 이효재를 중심으로 한 여성학 연구자들이 편역해 낸, 여성학 연구서들의 존재 역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1970년대에는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편역해 낸 『한국여성문화』(크리스찬 아카데미 총서, 1975), 이효재가 엮은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1979), 이화여대 여성학 연구소의 『여성사회철학』(1979)도 중요한 성과이다.¹⁶⁾

이처럼 페미니즘 텍스트를 읽는 여성들의 등장은 강렬한 자의식을 가진 여성작가들의 출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현재 여성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들 중 다수가 이 시기에 등단한다. 강은교(1968), 오정희(1968), 박완서(1970), 김승희 (1973), 고정희(1975), 최승자(1979), 김혜순(1979) 등 6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들 여성작가의 면모는 1970년대를 한국페미니즘 문학사의 한 기점으로 삼게 한다.

이들 중 박완서는 한 글에서 보부아르의 『위기의 여자』를 언급하면서 “모니끄가 남편의 외도를 통해 고통스럽게 획득한 걸 주부들은 그것을 구경만 하고 얻을 수 있다면 이 아니 슬기로운 주부가 아니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 역시 『위기의 여자』를 읽었으면 이러한 현상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었다.¹⁷⁾

여러 연구자의 주장대로 박완서는 1970년대 중산층 여성들의 삶을 개발독재로 급속도로 변화해 가는 한국의 자본주의 현실 속에서 실감나게 묘사한다.¹⁸⁾ 보부아르의 『위기의 여자』를 읽었던 박완서는 이후 소설에

15) 1970년대 초는 이러한 여성학 저서들이 번역되어 출판되기 전이었다.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최신의 학문을 접했던이 경험들은 그에게 짜릿하고 즐거운 기억으로 이야기되었다(이혜정, 『1970년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공부’ 경험과 가부장적 젠더규범』, 『교육사회학연구』 22(4), 2012, 247쪽)

16) 김영선, 『1970년대 페미니즘 이론의 번역/실천과 여성학』, 『여성문학연구』 37, 2016 참조.

17) 박완서, 『위기의 남녀』, 『서 있는 여자의 갈등』, 나남, 1986.

18) 이선미는 1976년에 나온 소설 『휘청거리는 오후』를 분석하면서 박완서가 한국사회 여성담론장에서 중산층여성과 근대화의 관계를 구체적 실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서 부부 중심의 핵가족 제도의 모순성을 정면에서 다룬다. 특히 박완서의 문학 세계 내부에서도 전환점으로 작용했다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날들의 시작」의 주인공의 내면에서 「위기의 여자」의 주인공 모니끄가 보이는 것은 단순한 영향 관계를 넘어 이 두 여성작가의 존재론적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위기’의 여자들- 보부아르 번역의 도정과 그 의미

2.1. 계약 결혼- ‘동지적 사랑’ 혹은 ‘일탈’에 대한 욕망

해방 이후 번역사를 살펴볼 때 보부아르의 텍스트는, 당대 번역 토대의 열악함을 반영하듯, 체계적인 기획 하에 번역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¹⁹⁾ 그리고 그나마 1955년에 번역된 「제2의 성」의 경우는 발췌역인데다가 남성번역가에 의해 번역되면서 젠더적 시각이 제대로 번역되지 못한다.²⁰⁾ 다음은 국회도서관에서 검색한 보부

어느 사회학 이론보다도 1970년대 한국의 ‘여성’을 사회학적으로 해석한 경우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1975년을 계기로 형성된 한국사회의 여성과 관련된 논의들 속에서 현실적인 여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이 부상하는 중산층의 삶의 방식과 한국적 근대화의 성격을 생활 풍속의 측면에서 조명했다. 박완서는 이 소설을 통해서 여성들이 왜 그렇게 결혼에 집착했는지를 분석한다. 전후 황폐한 현실 이후, 가난에 대한 끔찍한 혐오감이 내재되어 있었던 중산층 여성들이 오로지 결혼을 통해서만 신분상승이 가능했던 상황을 설득력있게 제시한다. 이상 내용은 이선미, 앞의 글 참조.

19) 보부아르 번역 수용사에 대한 실증적 내용은 조혜란, 「『제2의 성 Le Deuxieme sexe』의 초기 한국어 번역과 수용- 이용호의 1955년, 1964년 번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참조.

20) 한 연구에 의하면 최초로 시도된 「제2의 성」 번역은 여성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남성 번역자의 젠더적 시각에 의해 내용이 축소, 은폐되어 번역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영호가 정신분석학 전문 번역가였는데 기인하며, 그만큼 당대 번역가층이 알았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제2의 성』 완역은 1973년 조홍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미향, 박정윤, 이영훈, 「번역가의 젠더와 성적 표현의

아르 관련 번역 서지이다.

	자료명	저자	게재지	발행시기
1	復讐의心理	보봐르	新京郷2,1	'50.1
2	文學과形而上學	보봐르,시몬;朴異汶譯	思想界4,11	'56.11.
3	實存主義와카토리시즘	보봐르,요셉로겐들 푸共著;李東漢譯		1958
4	實存主義文學	보봐르,요셉로겐들 푸共著;李東漢譯		1959
5	사르트르와보봐르의神話	金鵬九	思想界12,12	'64.12.
6	象徴으로서의女性	金泰寬	女像	'66.11.
7	시몬느 드 보봐르의<본질적사랑>	Ulam,Adam	共產主義批判2,1	'67.1.
8	오늘의世界文學.v.1~12			1969
9	여성이란무엇인가	보이덴데이크,F.; 金炳孝譯	世代80	'70.3.
10	老人이여!생의기쁨을	보봐르,시몬느 드	月刊中央49	'72.4.
11	시몬느 드보봐르:따져봐야할모든것들, 프랑스와즈사강:靈魂의푸른傷處	李炳珠	문학사상5	'73.2.
12	보봐르 「第二의性」 以後/	무어헤드,캐럴라인	世代132	'74.7.
13	세계의女性傳記1~7			1975

<국회도서관 검색 목록>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번역은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의 표를 보면 2~4번은 실존주의 관련 텍스트이고, 6번, 9번은 여성 문제 관련 텍스트이다. 5번과 7번은 사르트르와의 사랑, 계약결혼에 관한 텍스트이다. 이외에 10번은 기타 주제로, 보부아르가 노년에 천착했던 노인문제 관련 텍스트이다.

먼저 L/existentialisme et la sagesse des nation과 요셉 루겐돌프의 일역판 카톨리시즘을 한데 묶어 펴낸 『실존주의와 카톨리시즘』(이동한

번역-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Le Deuxième sexe)』 번역본 비교, 『번역학 연구』 13(5), 2012.12 참조)

역, 협문사, 1958)²¹⁾은 실존주의가 유행했던 1950년대에 번역된다. 특히 후자에 실린 단행본의 목차 중 개별 장은 이미 「복수의 심리 (CS생, 『신경향』 2(1), 1950.1.1.)로 번역²²⁾되거나 이후 「문학과 형이상학 (박이문 역, 『사상계』4(3), 1956.11.)으로 번역된 바 있다.

1950년대에 주로 실존주의 텍스트가 번역되었던 것은 이 시기에 실존주의가 철학의 핵심적 논리로 주목받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여성 관련이나 사르트르와 계약 결혼에 관한 텍스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그만큼 지식인 여성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여원』, 『여상』 등 여성매체도 늘고 그 독자들이 요구하는 여성문제 관련 기사도 점차 늘어났기 때문이다. 신문 기사에서도 역시 보부아르는 “실존철학자”, “여류작가”라는 수식어를 대동하여 등장한다. 또 1970년대 들어서 프랑스의 낙태 반대 운동 소식을 전할 때는 여성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기도 한다²³⁾.

그러나 대개의 신문기사에서는 사르트르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늘 그 옆에 있었던 보부아르를 동반자로 소개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 사시의 천재(사르트르-인용자)는 그와 고등사범 동창이며 여류 지성인인 시몬 드 보부아르와 그야말로 자유에 입각한 생활을 한다”²⁴⁾라든가 “사르트르의 반려자이며 철학자”²⁵⁾로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세계적인 지성”, “실존철학자” 등도 당대 독자들이 보부아르를 인식하는 키워드이긴 했지만 이처럼 사르트르와 계약결혼을 한 유명한 작가라는 점이 그를 수식하는 수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다.²⁶⁾ 물론 보부아르 자신

21) 이후 이 텍스트는 1959년에 번역된 『실존주의문학』(이동실 역, 경문사, 1959)으로도 발간된다.

22) 『실존주의와 카톨릭시즘』의 목차에서는 「눈에는 눈을」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본 텍스트가 실린 『신경향』에서는 번역 텍스트 말미에 “「폴리틱」지 소재 「눈에는 눈으로 대하라」 중에서 CS생 초역(抄譯)”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23) 「낙태 자유운동 앞장. 불어우 드뇌브 모로양」, 『동아일보』, 1971.5.25.

24) 「(신) 「노벨문학상거부한 「사르트르」 “인간은 자유다” 외치며」, 『경향신문』, 1964.10.23.

25) 「「위기의 여자」 출간- 정우사 첫작품으로」, 『경향신문』 1975.11.27.

도 자서전²⁷⁾ 중에서 사르트르와의 계약 결혼 관계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서술하지만, 보부아르의 방대한 저작이 보여주는 철학과 문학의 위대함, 여성운동과 사회 활동을 하며 보여주었던 실천적 태도는 그의 의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독자적 철학 체계를 수립한 위대한 철학자이자 여성운동가로 바라보기보다, 사르트르와 계약결혼을 한 특이한 여성으로 기억하길 원했다.²⁸⁾

그래도 실존주의가 주류였던 1950년대 텍스트에는 실존주의의 부조리하고 자유로운 개체성을 기반으로 한 자유연애관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경향신문』에 김봉구에 의해 연재된 「여성의 자유와 능력 - 시몬느 드 보봐르의 작품세계(1~5, 1956. 2. 16~22)에서는 보부아르의 작품 “autres bouches inutiles”(1945)(김봉구는 이를 「쓸데 없는 식

-
- 26) 보부아르를 여성철학자로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우르술라 티드의 평전 (우르술라 티드, 『시몬느 드 보봐르- 익숙한 타자』, 우수진 역, 엘피, 2007.)의 번역자 우수진은 “보부아르에 대한 세간과 비평의 관심은 일반적으로 보부아르의 사유 내지는 글쓰기보다도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삶 자체, 특히 사르트르를 비롯한 동시대의 다른 남성 지식인들과 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듯하다”고 한다. 우수진은 “실제로 최근 3.4년간 국내에서 출간된 네 권의 보부아르 관련 저서와 번역서 가운데 세 권이 보부아르와 사르트르 간의 사랑 혹은 계약 결혼에 초점을 맞추었고 나머지 한 권도 보부아르 동생인 화가 엘렌 드 보부아르의 삶과 사랑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안타까워한 바 있다. (『옮긴이의 글』, 위의 책, 5 쪽)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를 소개하는 텍스트는 “사르트르의 반려자”처럼, 그녀의 이름을 늘 사르트르의 이름과 함께 호명하곤 했다.
- 27) 자서전 4권의 제목은 각각 『처녀 시절』(Mémoires d'une jeune fille rangée, 1958)·『나이의 힘』(La Force de l'âge, 1960)·『사물의 힘』(La Force des choses, 1963)·『결국』(Tout compte fait, 1972)이다. 또한 사르트르의 말년을 고통스럽게 이야기한 『작별의 의식』(La Cérémonie Des Adieux)을 쓰기도 했으며 사르트르의 사후에는 그와 주고 받은 서간집을 출판하기도 했다. (『시몬느 드 보봐르 저, 『나의 계약 결혼』, 이현아 역, 정음사, 3백12면 4백 50원』, 『동아일보』, 1967.4.27.)
- 28) 시몬느 드 보부아르, 『사랑의 의미』, 『조선일보』, 1965.9.5. 이외에도 예를 들면 『보봐르와 사르트르』, 『한국일보』, 1961.2.9., 『노벨문학상을 거부한 사르트르의 아내 보봐르』, 『한국일보』, 1964.10.25., 오중자, 『사르트르 내외의 회고록 ‘불란서문학’』, 『문학춘추』1(3), 1964.3. 등이 그러한다.

구들」로 번역)를 중심으로 보부아르와 실존주의 그룹의 철학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인간의 본질 또는 보편적인 인간 뿐만 아니라 일체의 선형적인 가치 규범을 인정치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 「사회참획」, 「책임」도 인간조건 안에 있는 「사실」로서 인간생활의 레알리티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보봐르의 「초대받은 여인」이라는 소설 안에서는 성도덕으로서 정조라던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결혼 같은 것은 전혀 처음부터 무시하는 세계다. 다만 속임없는 사랑 사랑만이 정당화하는 성행위, 그리고 서로 구속없는 남녀관계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 등이 기성윤리에 대치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외부적인 전통적 구속으로서의 모랄 대신 자유인의 성실성에 의한 지이드식의 「자치적 모랄」이라고나 할까? 이러한 그들의 입장으로 보아 그가 여성의 자유와 능력을 사회적 지적 특히 성적 면에서 대담하게 숨김없이 드러내 보이는 것쯤 당연사로 여길 것이다.²⁹⁾

여기서 김봉구는 「쓸데없는 식구들」의 분석을 통해 보부아르의 사상을 전통적 구속으로서의 모랄이 아니라 자유인의 성실성에 의한 “자치적 모랄”, “일체의 선형적인 가치 규범을 인정치 않”는 실존철학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초대받은 여인」에서 드러난 자유연애 사상은 “성도덕으로서 정조라던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결혼 같은 것은 전혀 처음부터 무시하는 세계”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보부아르가 “여성의 자유와 능력을 사회적 지적 특히 성적 면에서 대담하게 숨김없이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소개한다. 이처럼 당대로서는 대담하게, 성도덕의 문제를 무시하는 보부아르의 자유분방한 태도를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대가 실존철학에 대한 소개에 집중했던 시기였기 때문

29) 김봉구, 「여성의 자유와 능력- 시몬느 드 보봐르의 작품 세계(완)」, 『경향신문』, 1956.2.22.

이다.

그러나 계약결혼을 다룬 텍스트가 많이 번역되는 1960년대에는 그 양상이 다소 달라진다. 프랑스의 지성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실존의 사랑」(『조선일보』, 1964.11.26.), 『나의 계약결혼』(이현아 역, 정음사, 1967), 「사르트르와 나 - 회고록 <사물의 추세>에서 (김봉구 역, 『여원』, 11(3), 1965.3.) 등이 보부아르 관련 텍스트의 예이다. 그런데 이 텍스트들은 “동거하면서 서로 바람피우는 걸 이해”³⁰⁾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정적인 주제에 집중한다. 동시에 늘 이 텍스트들은 이들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모순적 태도는 일부일처제의 억압에 대응하는 일탈에 대한 욕망과 이를 지탱하는 영원성을 추구하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타지가 혼재되어 있는 기묘한 형국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체들의 이중적 태도는 핵가족 제도 자체의 모순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근대 자본주의 공장 노동 시스템에 걸맞게 탄생한 핵가족제도에서 여성의 소외를 봉합해 주는 허위의식이 바로 낭만적 사랑이기 때문이다. 근대 산업 사회의 노동 시장에서 소외된 여성들은 ‘낭만적 사랑’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남편에의 경제적 예속을 보상³¹⁾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낭만적 사랑이란 것은 허구이며, 이러한 경제적인 예속과 억압을 낭만적 사랑만으로는 봉합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는 ‘낭만적 사랑’이 보부아르와 사르트르와의 관계를 통해 ‘동지적 사랑’이라는 의미로 혼재되어 인식된다는 점은 긍정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응에는 부부 간 일탈에의 욕망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불륜이 소재인 위기의 여자 의 베스트셀러화가 증명하듯, 아직

30) 『프랑스의 지성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실존의 사랑』, 『조선일보』, 1964.11.26.

31) 재클린 샬비, 『낭만적 사랑과 사회』, 박찬길 역, 민음사, 1985 참조. 낭만적 사랑은 다른 다른 어떤 것보다 서구 여성을 감정적으로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남녀관계에 묶어 둔다. 이를 통해 중산층 여성상은 부양자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 있다. 마리아 미즈는 이러한 점에서 어떤 면에서 중산층 가정 주부가 된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주장한다. (마리아 미즈,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2014, 422~423쪽 참조)

까지 여성들에게 계약결혼은 자신이 실현가능한 것이라기보다는 남편의 일탈, 외도라는 상황으로 이끄는 불안한 것일 수 있었다.

반면 남성들의 경우는 이러한 이중적 욕망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1965년 잡지 『여원』에 실린 글 샤르트르와 나-회고록 「사물의 추세 에서 (『여원』, 1965.11.)³²⁾의 서문에서 역자인 김봉구는 계약결혼 상황에서 사르트르의 외도로 인해 겪었던 보부아르의 고통에 대해서 소개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에서 열렬했던 알그렌과의 연애에 대해서도 자세히 번역한다. 그러면서 그는 “두 남녀 간의 충실성과 자유 사이에는 어떤 타협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대가가 요구되는가?”라든가, 샤르트르와의 계약 연애를 하는 동안 발생하는 제3자(두 사람의 연인들)들의 피해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자유분방한 계약연애가 이 두 사람이 선택한 제3자인 연인의 상처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러한 다분히 윤리적인 태도는 김봉구 자신이 보부아르의 실존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적 연애관을 소개했던 1950년대 번역 텍스트에서 보여준 것보다는 다소 보수화된 것이다. 이는 이 글을 수록한 매체가 여성 잡지라는 점을 의식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 그만큼 이 시기에는 부부 중심의 핵가족 담론이 이전 시기보다 견고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글의 목적에는 다른 면이 숨어 있었다. 이 글의 필자는 보부아르의 사상보다는 샤르트르 사상의 핵심, ‘부르주아적 보수성에 대한 반발,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양가주망)’이라는 문제와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샤르트르와 까뮈, 메를로 뵘티, 그리고 공산주의자들과 빚어진 갈등 상황을 보부아르의 입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³³⁾ 그는 이들의 관계를

32) 이 글은 원텍스트는 *La Force des choses*,(1963)이다. 김봉구는 이 텍스트 중 “우리로서도 가장 흥미를 끌릴만한 부분만을 추려 초역”했다고 밝히고 있다.

33) 이 글에서 역자인 김봉구는 역주를 통해서 한국전쟁을 계기로 샤르트르가 중립적 사회주의에서 철저한 공산당의 동조자로 전향했다는 점을 소개하고 그러나 이것이 「양가주망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사상적인 결론이 아니고 자기입장의 정당화라는 심리적 계기와 타산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보부아

통해서 보부아르의 사상보다 사르트르의 사상을 소개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이러한 점 역시 보부아르를 독자적인 개체라기보다 사르트르의 동반자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약결혼을 가십거리로만 다루었던 이전의 태도들과는 이는 다소 달라진 태도이기도 하다. 그래도 그는 사르트르와 함께 보부아르의 자유주의적 정치 사상과 실천 행동을 소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이전보다 높아진 『여원』 독자들의 지식 수준에 맞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봉구는 『사상계』에서도 같은 텍스트 「사물의 힘(추세) 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원』에서와는 다른 논조로 글을 전개시키고 있다. 그는 보부아르가 독자적 세계관을 가졌으나 “역시 세상 대부분의 부인들 살림 이외의 세상에 관해서는 어느듯 남편 의견에 동화해 버리는 사랑스러운 조강지처의 심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고는 “이상적인 여성에 가깝기까지 하다”고 평가한다. 더 나아가 “아내와 정부를 겸할 수 있는 여성”으로, “어느 한 남자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고 조금도 부담을 끼치지 않으며 무제한의 사랑과 신뢰를 바치는 여성으로, “어떤 점에서는 남자에게 세상에 더 바랄나위 없는 이상적인 동반자”라고 평하면서³⁴⁾ 보봐르를 통해 가부장제적인 남성 환타지를 투사해 내고 있다. 이는 이 두 사람의 계약결혼이 여성들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남성들에게도 선풍이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남성중심적 태도는 그가 보부아르가 모성을 부정했다는 점을 비난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프랑스에서 보부아르를 비난하는 가부장제적인 남성 필자들의 시선을 그대로 모사하고 있었다.

한 필자가 이렇게 한 텍스트를 가지고 상반된 관점의 글을 쓸 수 있었

르, 앞의 글, 259쪽) 이러한 점은 사르트르를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그가 사상적 궤적을 통해서 제대로 증명해 내고자 한 역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4) 김봉구, 「사르트르와 보봐르의 신화」, 『사상계』, 1964.12, 268쪽.

던 것은 전자의 글이 실린 매체가 여성잡지였고 후자가 주로 남성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당대 지식층 내부에서 보부아르를 바라보는 관점이 분열되어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만큼 이 시기는 여성들의 존재론적 자각이 점차 강화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선에 불안이 투영되고 있었던 과도기적 상황인 것이다. 반면, 여성 번역가인 오증자의 관점은 이와 달랐다.

보봐르 여사는 여성을 여성으로서의 특별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여성으로 규정해 왔다. 그의 여성들은 모두가 이 <인간으로서의 여성> 탐구이다.

오직 쓰는 일과 공부하는 일만이 사르트르의 사랑과 더불어 여사의 인생의 전부였다.

그들은 작품의 제목 하나하나까지도 같이 의논하고 연구했다고 한다.

그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희망하고 투쟁해 왔다. 그리고 같은 방향을 향해 서로의 세계를 부단히 창조해 왔다.

백년해로를 만인 앞에 선언하고도 삼시간에 걸려되는 그 많은 사랑 앞에, 그들은 단 2년간의 계약에서 출발하여 지금 40년의 역사를 창조해 오지 않았던가.(중략) 현실적인 성공과 명예를 도외시하던 그 여자에게 있어서 40년이란 사랑의 역사는 곧 사랑의 성공을 뜻하기 때문이다.³⁵⁾

오증자의 경우는, “그들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희망하고 투쟁해 왔다”면서 두 사람을 동반자적 관계로 소개한다. 평생 사랑에 충실하면서도 “쓰는 일과 공부하는 일”만이 전부였던 보부아르의 프로다운 열성이 사르트르와의 관계를 동지적 관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위계화된 부부 관계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당대 여성들의 열망을 반영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이 시기에는 결혼 제도에 대한 반

35) 오증자, 「실존과 사랑의 새방향」, 『여성』, 1967.9, 100~103쪽 참조.

발이라는 보부아르와 사르트르의 의식 세계 역시 번역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결혼보다도 강한 유대로 결합하였다. 두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부르조아」제도였으며 타기할 것이었다. 그들은 “결혼”을 택하지 않고 “창조”와 현대사회 내지 현대라는 시대, 그것의 편견에 대한 반역 즉 자유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결합되었던 것이다.³⁶⁾

이 두 사람의 결합이 결혼이라는 부르조아 제도에 대한 반항이었다는 점. “창조”와 현대라는 편견에 대한 반역, 즉 “자유”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결합된 것이라는 구절은 이 글의 필자가 사르트르와 보부아르가 행한 계약결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다는 점을 알려 준다. 당대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계약결혼을 지탱하고 있는 자유로운 개체 간의 사랑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보수화되었던 군국주의적 가족 담론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연애에 대한 당대 젊은이들의 열광은 당시의 억압적 분위기에 저항하는 하나의 의식적 행위였다.³⁷⁾ 이처럼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보부아르 번역사에는 도덕적 관념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실존적 사랑에서 남녀 간의 동지적 사랑, 혹은 일탈에의 욕망까지 다양한 의식이 혼재되어 있었다.

2.2. 절반의 ‘자각’- 핵가족 담론의 균열과 붕합

앞서 소개했듯이 『여원』, 『여상』 등 여성매체가 여성 독자를 끌어 모으면서 1960년대에는 보부아르의 텍스트 중 실존철학적 측면보다는 보부아르가 여성 문제를 다룬 논의가 주로 번역된다. 특히 병든 프랑스의 제2의 성(『여원』, 1961.7.8.)은 「현대 불란서 여성의 우울 (『여상』, 1(12)),

36) 「제2의 성에도 황혼은 오고」, 『경향신문』, 1961. 2. 9.

3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규현, 「제2차대전에서 68혁명까지의 파리의 연애사와 성담론」, 『프랑스문화예술연구』 11, 2004. 참조.

1962.12.)로 또 한번 번역된다. 이외에 「보봐르 부인-실존의 사랑의 새방향 (『여성』 6(9), 1967.9.) 등이 번역된 대표적 텍스트이다. 이 글에서 보부아르는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고통을 부각시키면서 이를 타기할 방법에 대해서도 논한다.

태반의 경우에 있어 여성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극히 소수의 여성들을 위해서도 그것은 선택이라기보다 오히려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요당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둘 중의 어떤 것을 꼭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절박한 강요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그렇게 해서 강요된 후 만족할 만한 것에서 아주 거리가 먼 결과로 나타날 것이 예상될 때는 더한 것이다. (중략) 실제로 극히 소수의 예외를 빼 놓으면 모든 여성들은 자기의 사는 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다. 독신여성이나, 수입이 적은 남자를 남편으로 하는 여성이나 혹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모두가 자기 대로의 수입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주부로서 가정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도 동일하다.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마음에 아픔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프랑스 여성들의 3분의 2는 가정을 한발자국 나가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중략)..

여성들도 자기들의 노력을 통해서 국가적인 계획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정부는 직장에서의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이 양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이나 시설을 마련할 것이다.

...(중략)... 탄 말로 하면 모든 여성이 일할 수 있게 되고 직장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될 때 비로소 여성은 진짜로 독립한 개인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진정한 평등이 유지되고 여성들은 다시 오늘과 같은 괴로움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³⁸⁾

38) 시몬느 드 보봐르, 「병든 프랑스의 제2의 성」, 『여원』, 1961.7.8.

이 글에서는 가사노동에 피로한 주부들,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 수 없는 직장여성이 감당해야 할, 직장과 가사 일의 이중 부담 등 보부아르의 텍스트는 현재 시점에 대입해도 공감이 갈 수 있는 문제를 다룬다. 이처럼 당대 텍스트, 특히 보부아르의 텍스트에서 주로 번역된 내용은 여성의 주체적 독립은 구체적인 물질 토대를 마련해야 가능하다는 냉정한 고찰이었다. 이는 보부아르가 바라본 대로 서구에서도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보편적인 여성문제였지만, 특히나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 힘들었던 당대 한국 여성들에게는 더욱 절박한 것이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1960년대 전례된 현상은, 지극히 드물었던 지식인 여성의 존재성 때문에 더 센세이셔널했던 것일 수 있다. 1970년대에도 감히 직업여성을 꿈꾸지 못했던 한국의 여성들이 하물며 1960년대에는 직업에 대한 열망을 꿈꿀 수 있었을까.³⁹⁾ 1970년대에도 비혼의 저임금 여성들이 주를 이루었던 당시의 노동시장에는 대졸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적었다. 그리고 제도적 차별이 많았다. 당시 여성은 모집, 채용 과정에서 차별받기 쉬웠고 대부분의 직장에서 결혼 후 퇴직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등의 모성 보호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취업을 원했던 여성들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거나 결혼 후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⁴⁰⁾ 이러한 상황에서 보부아르의 주장은 한국 여성들에게 매우 절실하게 다가오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텍스트의 번역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두 번째 번역된 『여상』 텍스트에서는 말미에 “만일 여성들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 개인의 해결을 부여함에 만족하려 하지 않으려면 이 생산방식의 타도를 조금이라고 빨리 성취하려는 남자들 편에 서서 함께 싸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이 덧붙여 있다. 앞서 『여원』에서 번역된

39) 이혜정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을 졸업하면서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이 여성들에게 부모는 취업이나 진학보다 결혼을 바람직한 선택지로 기대했다고 한다. (이혜정, 앞의 글, 254쪽)

40) 위의 글, 254~256쪽.

텍스트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이는 여성들이 싸워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해결 방안을 소개하고 싶지 않았던 편집자의 의도이거나 한 단락 정도 생략하더라도 페이지를 넘겨 글을 마무리하지 않으려는 편집의 편의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늘 여성의 주체적인 자각을 강조하는 보부아르의 논지를 제대로 번역하려면 후자의 번역이 더 올바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편집자의 의도라면 아직 “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보부아르의 여성 해방 담론이 제대로 번역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비교적 다양한 시선이 공존했던 시기를 지나서 1970년대가 되면 책을 사 보는 지식인 여성의 수가 늘어나면서 보부아르의 텍스트는 주로 단행본으로 번역되어 출판된다. 각주 12번에서 정리된 대로 다수의 텍스트가 번역되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문학 텍스트와 자서전이 번역된다. 물론 1960년대까지 단편적으로 번역되었던 보부아르 텍스트가 단행본으로 완역 출간될 수 있었던 것도 「위기의 여자」의 히트 덕분이다.

위기의 여자 는 시몬 드 보부아르의 대표작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서 평범한 삶에 만족하며 살았던 주인공 모니끄가 남편의 외도를 겪으면서 존재론적 자각에 이르는 과정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이 텍스트가 의미깊은 것은 이 텍스트가 실존철학자 보부아르의 존재론적 사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부아르는 모호성의 도덕에 관하여 에서 인간 존재가 늘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인간존재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변수들 안에서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¹⁾

여성의 존재성 역시 마찬가지이다. 주체가 끊임없이 존재의 자유를 추구해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결말에서 보여진 모니끄의 존재론적 절망은 그녀가 고정된 실체를 갖지 않는 존재의 근원적 불안을 이해야 제대로 직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개의

41) 우르술라 티트, 『시몬 드 보부아르-익숙한 타자』, 우수진 역, 엘피, 75~76쪽.

문을 바라본다. 모리스의 서재와 우리들의 침실 문을. 문은 닫혀져 있다. 그 문 뒤에서 무엇인가가 엿보고 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절대로. 시간과 생명을 정지시킨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움직이리라는 것을. 그러면 문은 천천히 열릴 것이며, 나는 그 문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미래이다. 미래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다. 서서히, 가치없이. 나는 지금 문지방에 서 있다. 내 앞에는 이 문과 그 뒤에서 엿보고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두렵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구원을 청할 수는 없다. 나는 두렵다.⁴²⁾

보부아르는 여성의 진정한 존재성의 자각은 가장 신뢰했던 남편의 사랑에 배신당했을 때, 즉 자신이 믿고 살았던 가장 큰 가치가 붕괴되었을 때에만 도래한다는 무자비한 진리를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 보여 준다. 해피 엔딩이나 새드 엔딩으로 결론내리지 않고 열린 결말을 통해 보부아르는 무엇보다 그 길의 고독과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고자 했다.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존재의 모호함을 제대로 직시했을 때만이 진정한 존재론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고 냉정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 텍스트의 주제는 단순히 여성들의 존재론적 자각에 대한 계몽적인 언설에 머물러 있지 않다. 물론 이러한 보부아르의 의도가 당대 한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여성독자들에게 다가갔는지는 다른 맥락일 것이다. 이 텍스트 출판의 성공은, 반드시 보부아르 철학이 올바르게 번역된 결과라고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증자는 한 인터뷰 기사에서 작가가 ‘모니끄’라는 여주인공을 통해 여성의 자기발견 자기직시, 자기 성찰의 과정을 1인칭 일기체의 소설로 엮어나가고 있다고 소개한다. 아래의 인용구는 번역가인 오증자의 인터뷰 내용이다.

42) 시몬느 드 보부아르, 『위기의 여자』, 오증자 역, 정우사, 1975, 244쪽.

담담하게 간혹은 혹독한 자기비판을 가하며 그녀는 생전체에 개안하는 것이다. 여주인공이 그렇게까지 자기직시를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의사인 남편 모리스의 변신이다. 즉 남편이 「노엘리 라는 여자 변호사와 사랑에 빠지면서 여자는 신뢰 속에 잠자던 자기 의식을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다.⁴³⁾

이 글에서 번역가가 말한 “생전체에 대한 개안”이 존재론적 자각을 의미한다면, 번역가는 이 텍스트의 주제를 잘 소개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절처럼 텍스트의 반향은 여성들이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받으려 하는 열망이 그만큼 보편화되어가고 있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상황에는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이 투입되어 있다.

이선미에 의하면 보부아르의 초기 대표작인 「초대받은 여자」가 아니고 「위기의 여자」가 번역된 사정은 중년부부의 위기와 남성의 외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인 정서와 어울린다고 출판 기획자들이 판단했을 것⁴⁴⁾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앞서 분석한 대로, 가부장제적인 담론과 핵가족 담론이 맹위를 떨치던 이 시기 여성들의 분열된 인식 체계를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설득력있는 분석이다.

이 히트작은 출판사 정우사가 설립된 후 첫 번째로 출간한 텍스트인데, 이러한 선구안은 이 출판사를 차린 서제숙이 전한국여기자클럽 회장과 여성중앙 부장을 지낸 이력의 소유자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서제숙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르트르의 반려자이며 철학자인 시몬 드 보부아르의 최근작인 위기의 여자」는 풍요한 인생을 살아온 여성이 뜻밖에 드러난 진실 앞에서 좌절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주제로 독서의 여가가 없는 주부들이나 꿈많은 장래를 바라보는 여대생들에게 꼭 읽히고 싶어 이

43) 「『여자의 위기』를 번역·출간한 소설가 오중자씨 「마티스」의 「흰깃의 여인」이 작중인물 닮아..」, 『매일경제』, 1975.12.22.

44) 이선미, 위의 글, 573~574쪽 참조. 이선미는 이 글에서 ‘보부아르’ 번역사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문제의식에 동감하며 이 연구를 진행한다.

책을 첫작품으로 내어놓은 것”⁴⁵⁾이라며 출판 의도를 밝힌다.

그런데 여기서 모니끄가 “좌절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기획자의 주장은 본 텍스트의 주제와는 다른 것이다. 앞서 분석한 대로, 분명 「위기의 여자」는 모니끄가 고통스럽게 자기 존재성을 직면하는 절망적인 순간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주인공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한 것은 주인공의 행복을 꿈꾸는 대중들의 환타지를 반영한, 다분히 대중적인 포즈라고 볼 수 있다. 기획자는 기자 이력에 힘입어 당대 여성들의 삶과 그들의 열망을 전문가적인 대중적 감각으로 잘 파악하고 있었던 듯하다. 이 감각으로 기획자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 인텔리 주부들이나 여대생을 독자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들의 취향에 맞추어 이 책을 소개하였던 것이다.

또 번역가 오증자를 인터뷰한 한 기사에 의하면 그는 “일본에서 수년 전 여성들 사이에 베스트셀러로 선풍을 일으킨 바 있었”던 이 텍스트를 친구를 통해 입수하여 번역하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보면 이 텍스트가 같은 동양인, 일본에서 보여준 선풍적인 인기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공을 확신하고 출간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La Femme rompue”를 ‘위기의 여자’로 번역한 사정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⁴⁶⁾ 이 번역본의 제목은 역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1969년 일본 번역본을 따온 것이기 때문이다.⁴⁷⁾ 또 그는 “보봐르의 작품들이

45) 「<위기의 여자> 출간 정우사 첫작품으로」, 『경향신문』 1975.11.27.

46) 이 텍스트를 처음 번역한 오증자가 이 텍스트의 제목을 「위기의 여자」로 붙였다. 이외에 「위기의 여자」를 번역한 손장순의 경우도 이 제목의 대중성을 고려해 오증자 번역본의 제목을 그대로 따른 듯하다. 그러면서도 손장순은 이 제목을 직역하면 “꺾인 여자”, “지쳐 버린 여자” 또는 “좌절한 여자”가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손장순, 작품해설, 『위기의 여자』, 문예출판사, 2004, 205쪽.) “rompue”는, 사전에서 찾아 보면, “1. 부러진, 끊어진, 부서진, 2.(계약 따위가) 깨어진, 파기된”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뜻으로 직역하면, 너무 추상적인 단어가 되어버려, “위기”란 단어로 번역된 듯하다. 뜻을 전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이 텍스트의 주제로 볼 때, ‘위기’란 단어보다는 뭔가 꺾이고 좌절되어 자신의 존재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지는 형국을 형상화하는 단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47) 일본국립도서관을 검색해 보니 1969년에 번역된 바 있다.(シモーヌ・ド・ボーヴォワール 著, 『危機の女』, 朝吹登水子 譯 人文書院 1969.) 일본의 번역 현황에

위낙 철학적이고 해박해서 일반 독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번 작품만은 쉽게 공감의 가능성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책이었다”⁴⁸⁾고 밝힌다. 이 역시 이 텍스트가 철학적 주제를 전달하기보다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불륜’이라는 소재에 포커스를 맞추어 번역된 것이라는 점을 알려 준다.

이는 이 텍스트에 대한 서평에서도 드러난다. 이 텍스트의 성공은 『창작과비평』에 서평이 실릴 정도로 당대 지식인 사회에도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⁴⁹⁾ 이 서평에서도 필자는 한국에서 풍문으로만 떠돌던 보부아르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으로 “소설가로서 우리의 흥미와 관심을 끈 것”은 이 텍스트 출간 이후부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 여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언제나 성실한 대답을 주려는 보부아르이고 보면 인간화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적인 여성들이 그녀의 사상과 문학세계를 음미하고자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한다.⁵⁰⁾

그러나 그러면서도 “모니끄란 여성을 불품없이 다루고 있어서 보봐르의 여성관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읽지 않으면 속이 좀 불편해지는 작품”인데 비해 이듬해(1976) 번역되어 나온 『아름다운 영상』에 나온, “영상을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기 전에 능동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 영상을 토해버리는 로랑스에 훨씬 더 많은 지지가 간다”⁵¹⁾고 한다. 이러한 평가는 「위기의 여자」가 지식인 여성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보부아르 사상의 진수를 드러낸 작품이 아니라 그저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은 텍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대해서는 조혜란, 「『제2의 성 Le Deuxieme sexe』의 초기 한국어 번역과 수용-이용호의 1955년, 1964년 번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중 2장 2절 참조.

48) 「『여자의 위기』를 번역·출간한 소설가 오증자씨 『마티스』의 『희긋의 여인』이 작중인물 닮아」, 『매일경제』, 1975.12.22.

49) 권영자, 「여성의 인간화」, 『창작과비평』 12(2), 1977.6.

50) 위의 글, 693쪽 참조.

51) 위의 글, 698쪽 참조.

이러한 태도는 『위기의 여자』를 그리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는 다른 지식인 여성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1979년 『창작과비평』에 실린 대담에서 한 여성 논자는 보부아르의 『위기의 여자』가 가정주부와 직장여성을, 서로 경쟁의식을 갖고 질투심을 갖는 관계로 만들었다고 평한 바 있다.⁵²⁾ 그는 남편과 부인을 위해서만 헌신했던 가정주부인 모니끄가 남편의 내연녀인 변호사 노엘리에 대해 느끼는 적개심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한 것이다. 마침 이 구절은 좌담회에서 중산층 여성 운동이 노동자 여성 운동을 자신들의 운동 범주와 목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논의하던 대목에서 나온다. 이렇게 70년대 말(1979년)에 여성운동의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에 나온 이 발언은, 향후 중산층 여성 운동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출발한 80년대 여성 운동⁵³⁾의 출발점에서 이 텍스트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예견하는 것이다. 베스트셀러였지만, 이제 막 여성주의를 자신의 이념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지식인 여성들은, 외도의 원인을 남편의 의식이 아니라 그 대상 여성의 태도에서 찾고자 했던 여주인공의 태도를 그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서사 구도가 실존적 자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모니끄의 의식 세계를 좀 더 안일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에 의해 짜여진 것이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후에도 지속된 위기의 여자 붐은 당대 여성들이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모니끄에 공감했다는 점을 증명한다. 그러나 실제 1986년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연극 『위기의 여자』가 ‘여성주의’ 연극이 아니라, 여성들이 주요 관객층이었던 ‘여성 연극’으로만 평가된 것⁵⁴⁾은 당시가 중산층 여성 운동에 비판적인 시대적 상황이었고, 이 연극의

52) 이효재, 이창숙, 김행자, 서정미, 백낙청, 『좌담회-오늘의 여성문제와 여성운동』, 『창작과비평』14(2), 1979, 23쪽.

53) 1970년대 여성 운동이 1980년대 여성운동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80년대 여성운동의 주요 양상과 쟁점에 대해서는 이해령, 『빛나는 성과들 :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2016. 참조.

5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영미, 『1990년대 초중반 여성연극의 대중연극적 본질』, 『대중서사연구』13호, 2005, 144~146쪽 참조.

관객이 단지 부르주아 중년 부인들이었던 것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연극의 대본을 보면 각색자는 모니끄가 직면했던 존재론적 자각에 공감과 위로를 보내기보다는 고상한 지식인 남편 모리스가 불륜을 저지르는 순간, 모니끄에게 보여준 이중성에 더 집중한다.

모니끄: 난 무서워요. 알수없는 함정을 향해서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한 것만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모리스: 충격이 너무 컸구려. 마음을 좀 단단히 가져 줘요. 이번 일로 당신이 불행해 진다면 난 견딜 수가 없을 꺼야.

모니끄: (진정하려 하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얼마나...

모리스: 지금도 마찬가지야. (식사하며) 그때 내가 한 말 기억해? 당신이 떠나면 난 죽어버릴거라고 매일 맹세했었지. 노엘리가 나타났다고 해서 당신을 잃을 수는 없어요. 진정해 줘, 좀 더 마음을 쓸 테니까... 왜 그래? 전혀 식사를 못하는구려.

(중략)

객석을 향해 천천히 말한다.

모니끄: 결국 두 주일 만에 나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누구의 마중도 받지 않고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의 오랜 방황으로부터도 돌아왔음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도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랑베르 의사의 말이 맞았는지도 모르지요. 나는 이제 어디에도 나를 도울 손길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도울 수밖에요. 모리스는 셋방을 얻어서 떠나버리고 빈집은 캄캄하고 쓸쓸하게 마치 죽은 나무처럼 저기 서 있군요. 모리스는 돌아올지도 모르고 끝내 돌아오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랑에 모든 것을 걸었던 지난날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결국 옳건 그르건 자기 방식대로의 생을 살게 마련이니까요. 나는 아직 마흔 네 살이고 저 굳게 닫힌 캄캄한 문 뒤에는 어떤 모양 일는지 모르는 내 미래가 있다는걸 나는 압니다. <<무섭긴>>

<<두렵긴>> 하지만... 결국 내 손으로 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겠지요. 어떻게 나한테 주어진 나의 삶이니까요.⁵⁵⁾

연극으로 각색된 텍스트와 본 텍스트를 비교해 보면, 본 텍스트는 모니끄의 내면이나 모리스와의 대화 이외에도 친구나 딸과의 대화 부분에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장소적 한계 탓이기도 하겠지만, 연극에서는 모리스와의 대화 부분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모니끄의 내면적 고통의 원인이 존재론적인 차원의 근원적 문제임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모리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위선을 드러냄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단순화시키는 효과를 낸다.

특히 모니끄의 마지막 독백에서 각색자는 원작에서는 없는, “그래도 사랑에 모든 것을 걸었던 지난날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결국 옳건 그르건 자기 방식대로의 생을 살게 마련이니까요”란 대사를 넣는다. 이는 한국의 여성 관객들이 이 연극을 통해서 무엇을 보상받고자 했던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대가족제도 하에서 가족들에게 헌신하며 살았던 여성들이 점차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부부 중심의 핵가족이 되었으나 여전히 남편과의 관계는 남성 중심의 위계화된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여전히 외도라는 행위에 남성들이 당당한 상황은 여성들에게 스위트홈의 안온함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그릇처럼 매우 불안한 것으로 만들었다. 특히 개별자가 아니라 누구의 부인으로, 남편의 지위를 통해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지정받을 수 있었고, 전적으로 경제권을 남편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남편의 외도는 삶의 토대를 흔드는 위협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객들은 모니끄가 이 계기를 통해 남편에 대한 의존성을 버리고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 했던 존재론적 절망보다는 그녀가 남

55) 대본 『위기의 여자』(小劇場(소극장) 산울림 開館(개관) 1周年(주년) 記念(기념) 공연, 오중자 역, 정복근 각색, 임영웅 연출, 1986년 4월1일~30일까지 산울림 극장에서 공연), 22쪽. 62쪽.

편이 떠난 집에 홀로 남겨진 사실을 안타까워했던 것이다. 그래서 여성 관객들은 위태로운 존재론적 자각에 온전히 박수를 보내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만큼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며 이는 강고했던 현모양처 담론, 핵가족 담론이 당대 여성들에게 얼마나 억압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당대 여성들은 어쩌면 『인형의 집』에서 집 밖으로 나간 노라보다 집 안에 버려진 모니끄의 상황에 더 공감이 갔는지도 모른다. 또한 바로 이 점이 이 연극의 대중성이 갖는 가장 큰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각색자인 정복근은 바로 이러한 점을 의식하고, 이 대사를 첨가해서라도 가부장제적 삶을 살아왔던 여성 관객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⁵⁶⁾

당대 대표적 여성운동이었던 가족법 개정 운동이 오히려 일부일처제의 확립에 기여한 사실 역시, 여성의 권리가 일부일처제의 공고화 속에서 단계적으로 가능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⁵⁷⁾ 간통죄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와 간통죄 폐지 법안에 대한 여성단체의 반대 역시 이러한 점을 말해 주는 것이다.⁵⁸⁾ 이들처럼 1970년대 여성 주체들의 인식에도 부부 중심의 핵가족, 안온한 스위트홈에 대한 환타지와 그러한 안락함의 불가능함에 대한 자각 사이의 분열이 내장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보부아르 번역의 한계점은 한국 여성작가들의 주체적

56) 이러한 분석은 그간 여성 희곡 작가(연극인)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온 김옥란 선생님의 조언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다. 김옥란 선생님은 희곡작가인 정복근이 당대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작품 세계가 여성주의와는 다른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었지만, 작가의 작품 세계 전편을 살펴보았을 때에 당대 인텔리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었음직한 상식적 차원에서의 여성주의적 시각도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고 조언해 주었다. 그만큼 이 세대 지식인 여성들의 내면은 과도기적인 의미에서 복잡한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김옥란, 「작가와 여성주의적 시각의 전유 방식 : 정복근의 경우」, 『한국극예술연구』 16, 2002에서도 드러난다.

57) 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소현숙, 「1950~60년대 '가정의 재건'과 일부일처법률혼의 확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3, 2015.4. 외다수.

58) 이에 대해서는 이임하, 「광기에 찬 여성들—1950년대 간통쌍벌죄 법정에 모여든 여성들의 소동」,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책과함께, 2006. 등 참조.

수용과 변용을 통해 극복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보부아르 여사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가 우리의 여성 문제에 끼친 것들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해보았다. 그의 작품을 하나도 안 읽은 사람도 그가 세계적인 지성이라느니, 사르트르와의 계약결혼으로 유명한 작가라느니, 실존 철학자라느니 하는 정도의 평가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의 글을 읽고 아니 읽고에 상관없이 더 나아가서는 그가 뭐하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도 여성의 문제를 생각하는 방법에서 그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중략)...그는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열심히 권했다고 나 할까. 그런 소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조금도 새롭지 않고 오히려 진부하게 들리는 것도 그의 영향이 그만큼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성숙해 이제 우리 나름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할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⁵⁹⁾

박완서는 보부아르의 텍스트가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열심히 권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새롭지 않고 오히려 진부하게 들리는 것은 그의 영향이 그만큼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성숙”되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이제 우리 나름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할 단계까지 와 있다”고 말한다. 이는 보부아르의 문제 의식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서 새롭게 사유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모니끄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청희를 주인공으로 서사적 구성이 유사한, 장편 소설 살아있는 시작을 『동아일보』에 연재하고 이를 단행본으로 묶어 낸다.

그런데 박완서의 텍스트는 연재 당시 여성 독자들에게 그리 긍정적으로 다가가지는 못했던 것 같다.

59) 박완서, 「위기의 남녀」, 『서 있는 여자의 갈등』, 나남, 1986, 87쪽.

이 이야기를 신문에 연재하는 동안 내가 접할 수 있는 독자의 반응이란 목청 높은 비난 아니면 냉랭한 무관심이었다. 고독한 작업이었다. 고독에 못 이겨 주제를 흐지부지하거나 적당히 감당하지 않고 내가 담고 싶은 메시지에 끝까지 충실했음을 내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자위하고 있다. 60)

박완서가 성토했던 “목청높은 비난”이나 “냉랭한 무관심”이라는 독자들의 반응 역시 보부아르의 텍스트가 여성들의 내면에서 제대로 번역되지 못했던 것과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내가 담고 싶은 메시지에 끝까지 충실했다”고 자부한 대로, 이 소설을 통해서 주인공의 존재론적 자각이 당대 가부장제적 억압 하에서 얼마나 처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형상화했다. 이를 볼 때, 같은 여성들이라고 해도, 『제2의 성』이나 『성의 정치학』을 읽었던 여성주의적 시각을 전유했던 지식인 여성 혹은 여성작가들과 위기의 여자를 읽었던 여성들 간 존재론적 성찰의 온도차는 아직은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온도차가 좁아지려면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어떠한 한계를 갖든, 이러한 다양한 번역 양태를 살펴볼 때, 분명 이 텍스트는 1970년대 한국 여성주의 발전에 있어서 어떤 수용과 극복의 기준점이 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3. 결론

지금까지 해방 이후 한국에서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텍스트와 사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번역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보부아르 번역사에는 도덕적 관념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실존적 사랑에서 남녀 간의 동지적 사랑, 혹은 일부일처제에 대응하는 일탈에의 욕

60) 박완서, 『후기』, 『살아있는 날의 시작』, 전예원, 1980.

망까지 다양한 의식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는 해방 이후 다양한 지식 장의 변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특히 보부아르의 텍스트가 주목받았던 1970년대는 한국 여성의 의식이 성장해 가는 시기이다. 여성학이 학문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고, 여성들의 인식이 독서를 통해서 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증명해 주는 텍스트가 1975~76년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보부아르의 『위기의 여자』이다. 보부아르의 텍스트는 앞서 말한 대로, 『위기의 여자』의 발간 이전부터 번역되었으며 인기에 힘입어 이후 『제2의 성』 등 주요 텍스트가 번역된다. 그 중에서도 사르트르와 계약결혼에 관한 텍스트가 많이 번역되어, 대중적인 관심이 보부아르의 철학적 측면보다는 사생활과 연애관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남녀 간 동등한 연애와 부부관계를 꿈꾸었던 당대 여성 독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면서도 이 시기에는 위기의 여자 외에도 보부아르가 여성의 억압적 현실, 특히 핵가족 제도 내부에서 구성된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텍스트도 번역된다. 그만큼 당대의 (핵)가족 제도와 미풍양속이라는 전통 관념의 억압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이 변화했던 것이다.

이 텍스트에서 보부아르는 여성 스스로가 억압적 현실을 인식하고 존재론적 자각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매우 냉정한 시각에서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위기의 여자』의 베스트셀러화는 이 텍스트가 불륜이라는 소재를 통해 중년부부의 위기라는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모니끄가 존재론적 자각을 이루기까지 직면해야 했던 처절한 상황에 당대 여성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불륜’에 유난히 분노했던 당대 한국 여성들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한국여성들은 가부장제의 전통과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핵가족 제도의 모순 속에 개별자들간의 관계가 아닌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기 존재성의 증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보부아르와 사르트르의 동지적 사랑을 동경하면서도 보부아르가 기획했던 부조리성을 깨닫는 개별자로서의 여성의 존재론적 자각은 제대로

수용되기 어려웠다. 1980년대 중반 연극 위기의 여자 가 대대적인 흥행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의 성공 역시 ‘절반의 성공’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과정이 이후에도 위력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런데 보부아르의 텍스트 중 위기의 여자는 여성주의적 시각을 전유하기 시작한 지식인 여성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다. 존재론적 자각을 이루기까지 모니끄의 존재성이 나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 텍스트는 1980년대 노동자 여성 운동으로 운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는 더욱 질타를 받았다. 이 세대의 여성주의 운동은 노동자 계급과의 연대를 깊이 고민하지 못했던 중산층 여성주의 운동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다.⁶¹⁾ 그래도 이 텍스트의 주제 의식은 박완서 등 결혼과 가족 문제의 파행성을 다루는 한국의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주체적 수용을 통해 진화된 변용을 겪게 된다. 이러한 여러 다양한 번역의 진폭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가 한국 여성주의 문학의 발전에 하나의 기준점이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든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일보』(1945~1979)
 권영자, 「여성의 인간화」, 『창작과비평』12(2), 1977, 693~698쪽.
 김봉구, 「썬트르와 보바르의 신화」, 『사상계』, 1964.12, 263~271쪽.

61) 1980년대 여성 운동의 사상적 진폭에 대해서는 이해령, 앞의 글 전반 참조. 마리아 미즈에 의하면 중산층 페미니즘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근대교육을 받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여성은, 그 계급적 지위 때문에, 특히 자유로운 가족 환경에서 살고 있을 경우, 이미 해방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여성해방에 대한 개념은 신여성 운동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부장제적 남녀관계,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민감한 측면의 문제를 분명히 배제하고 있다. (마리아 미즈, 앞의 책, 420~421쪽 참조)

시몬느 드 보봐르, 요셉 로겐돌푸, 이동한 역, 『실존주의와 카톨릭시즘』, 협문사, 1958.

시몬느 드 보봐르, 요셉 로겐돌푸, 李東實 역, 『실존주의문학』, 경문사, 1959.

시몬느 드 보봐르, 「병든 프랑스의 제2의 성」, 『여원』, 1961.7.8, 141~147쪽.

시몬느 드 보봐르, 「老人이여! 생의기쁨을」, 『月刊中央』49, 1972.4, 178~195쪽.

시몬느 드 보봐르, 「따져봐야 할 모든 것들」, 『문학사상』5, 1973.2.

시몬느 드 보부아르, 오증자 역, 『위기의 여자』, 정우사, 1975.

시몬느 드 보봐르, 오증자 역, 『아름다운映像』, 正宇社, 1976.

시몬느 드 보봐르, 全盛子譯, 『처녀시절』, 文藝出版社, 1976.

시몬느 드 보봐르, 尹映乃譯, 『第二의性: 自由스러운女子』, 自由文學社, 1977.

시몬느 드 보봐르, 권영자譯, 『부드러운 죽음』, 평민사, 1977.

시몬느 드 보봐르, 李石奉譯, 『계약결혼』, 民藝社, 1979.

시몬느 드 보봐르, 吳登子譯, 『완전한自由』, 文學世界社, 1980.

시몬느 드 보봐르, 全盛子譯, 『창백한 정신의 계절』, 두레, 1980.

박완서, 『서 있는 여자의 갈등』, 나남, 1986.

박완서, 『박완서 소설전집8- 살아있는 날의 시작』, 세계사, 2012.

오증자, 「실존과 사랑의 새 방향」, 『여상』, 1967.9., 100~103쪽.

오증자, 「짜르트르 내외의 회고록 ‘불란서문학’」, 『문학춘추』 1(3), 1964.3., 189~193쪽.

2. 단행본

한국여성문학학회여원연구모임, 『여원 연구 - 여성·교양·매체』, 국학자료원, 2008. 1~412쪽.

마리아 미즈,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2014, 420~423쪽.

우르술라 티드, 『시몬 드 보봐르-익숙한 타자』, 우수진 역, 엘피, 2007. 5쪽, 75~76쪽.

3. 논문

- 김양선, 「1960년대 여성의 문학·교양 형성의 세대적 특성 -잡지 <여학생>의 문학관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61, 2015, 120~147쪽.
- 김영선, 「한국 여성학 제도화의 궤적과 과제」, 『현상과인식』. 2010. 가을, 323~350쪽.
- 김영선, 「1970년대 페미니즘 이론의 번역/실천과 여성학」, 『여성문학연구』 37, 2016, 39~62쪽.
- 김혜경, 「박정희 체제하 “핵가족” 담론의 변화과정과 이원구조 연구 :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82, 2009, 169~212쪽.
- 김예립, 「1960년대 중후반 개발 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 판타지의 문화정치학」. 『현대문학의 연구』 32, 2007, 339~375쪽.
- 김옥란, 「작가와 여성주의적 시각의 전유 방식 : 정복근의 경우」, 『한국극예술연구』 16. 2002, 269~310쪽.
- 노지승, 「1950년대 후반 여성 독자와 문학 장의 재편」, 『한국현대문학연구』 30, 2010, 345~375쪽.
- 류진희, 「해방기 탈식민 주체의 젠더전략 : 여성서사의 창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5. 1~276쪽.
- 배은경, 「한국사회 출산조절의 역사적 과정과 젠더 : 1970년대까지의 경험을 중심으로:1950s - 1970s」,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1~282쪽.
- 박규현, 「제2차대전에서 68혁명까지의 파리의 연애사와 성담론」, 『프랑스문화예술연구』 11, 2004, 85~102쪽.
- 박인혜, 「1980년대 한국의 ‘새로운’ 여성운동의 주체 형성 요인 연구: 크리스찬아카데미의 ‘여성의 인간화’ 담론과 ‘여성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4), 2009,141~174쪽.
- 박지영, 「여성혁명가의 귀환, 그 이후- 해방기 여성혁명가의 형성과 가족서사」,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24, 2010, 181~223쪽.
- 소현숙, 「1950~60년대 ‘가정의 재건’과 일부일처법률혼의 확산 : 한국가정법

- 를상담소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3, 2015.4, 97~135쪽.
- 송명희, 「중년 여성의 위기의식 - 박완서의 『살아 있는 날의 시작』을 중심으로, 『표현』16, 1989, 264~273쪽.
- 안경희, 「가족법 개정사와 여성운동 :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6(2), 2014, 73~128쪽.
- 유미향, 박정윤, 이영훈, 「번역가의 젠더와 성적 표현의 번역-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Le Deuxième sexe)』 번역본 비교, 『번역학연구』 13(5), 2012.12, 143~173쪽.
- 윤정란, 「국가·여성·종교 : 1960~1970년대 가족계획사업과 기독교 여성, 『여성과학사』8, 2008.6, 59~91쪽.
- 이선미, 「『여원』의 비균질성과 ‘독신여성’ 담론 연구- 1950(55~58)년대 『여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4, 2008.6, 51~81쪽.
- 이선미, 「‘여성’의 사회적 해석과 1976년의 박완서 소설,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51, 2013, 571~611쪽.
- 이승희, 「한국여성운동사 연구 : 미군정기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1, 1~188쪽.
- 이영미, 「1990년대 초중반 여성연극의 대중연극적 본질, 『대중서사연구』 13호, 2005, 139~163쪽.
- 이임하, 「광기에 찬 여성들-1950년대 간통쌍벌죄 법정에 모여든 여성들의 소동,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책과함께, 2006.
-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 :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2016, 409~454쪽.
- 이혜정, 「1970년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공부’ 경험과 가부장적 젠더규범, 『교육사회학연구』 22(4), 2012, 227~266쪽.
- 이효재, 이승희 대담, 「나의 학문, 나의 인생, 『역사비평』 24, 1994, 248쪽.
- 조혜란, 「『제2의 성 Le Deuxième sexe』의 초기 한국어 번역과 수용- 이용호의 1955년, 1964년 번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155쪽.

Abstract

Women Destroyed: Translation of Beauvoir Text in the 1970's and Gender/Sexuality

Park, Ji-Young

This study examines how the text and thoughts of Simone de Beauvoir were translated in South Korea in the 1970s. The 1970s saw Korean women's consciousness growing. Women's study as a science began to be established, and women's consciousness began to grow through reading. This was proved by the text of Beauvoir's 『The Woman Destroyed』, a bestseller in 1975.

Beauvoir's text, actually, began to be translated even before 『The Woman Destroyed』 was published, and her popularity led 『The Second Sex』(Le Deuxième Sexe) and other major texts of hers to be translated. Of them, her contract marriage with Sartre was the most translated, suggesting that the populace's concern was focused more on Beauvoir's private life, particularly, love affair view rather than on her philosophical aspects. Nonetheless, Beauvoir's text on the criticism on women's suppressive reality, in particular, the hypocrisy of the nuclear family system, was also translated. Such typical text is 『The Woman Destroyed』(La Femme rompue). This text, etc. make a cool-headed insistence that women should realize the suppressive reality and achieve ontological self-awareness thereof.

South Korea saw 『The Woman Destroyed』 become a best-seller, not only because this text handles the crisis of an unfaithful middle-aged couple, an intriguing subject matter, but also because

such women’s ontological awareness process created an empathy among then intellectual women. This was proved by female novelist Park Wan-seo. Her novels feature female characters like Monique in 「The Woman Destroyed」 who, only after experiencing pains shaking her being, achieved ontological awareness.

Park Wan-seo’s text, however, instead of passively accepting Beauvoir’s text, is found to recompose the text in line with Korean reality. Issues of love affair and marriage, handled in Park Wan-seo’s text in the 1970s, show that the then policies for women under the influence of patriarchal orientation and development-oriented economic plans suppressed women. In particular, by featuring economically able women and intellectual men, her text shows even to them through the husband’s extramarital affair how much the marriage system, in particular, the couple-oriented nuclear family system, was full of hypocrisy. Compared to the West where the couple-oriented nuclear family system was settled early on, South Korea saw women’s position be more complicated and suppressed.

Key words : Simone de Beauvoir, 「The Woman Destroyed」(La Femme Rompue), The 1970s, Nuclear Family System, Marriage System, Decent Social Customs, Ideology of Good Wife and Wise Mother, Femininity, Patriarchy, Solidarity, Translation, Gender, Translation.

■ 본 논문은 2016년 11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6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